

육군종합행정학교
‘전산회계운용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년 연속 우수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 적극 도입 성과
아전 임무 수행 교육생도 평가여건 보장

육군종합행정학교(중행교)는 23일 “재정 교육단이 운영 중인 ‘전산회계운용사’ 과정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인증 심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과정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육군은 2016년부터 군 내 전투력 발휘 보장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NCS 개념을 적극 도입해 왔으며, 중행교 2018년 재정 교육단에서 ‘전산회계운용사 2급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재정교육단 장병들이 2025년 국가기술자격 인증 심사에서 재정교육단의 전산회계운용사 과정이 2년 연속 우수과정으로 선정된 것을 자축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해당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병과요원 육성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 연계 강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이후 한

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8월까지 258명이 응시해 1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아전 임무 수행 중 외부 평가를 병행해야 하는 교육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보수교육(전산회계운용반) 과정과 연계 운영해 평가여건을 보장했다. 그 결과를 2월 시행된 시험에선 응시자의 81%가 합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우수과정 선정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육군·충북지역에서 2년 연속 선정된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

22보병사단 소속 이정원 중위는 “교관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열정적으로 지도해 준 덕분에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병대(준장) 학교장은 “2년 연속 우수과정 선정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관들의 헌신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체제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군 간부들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공군 보안관계관 분야별 실무 능력·전문성 향상

8126부대에서 올해 4차 보수교육과정
작년보다 규모 늘리고 실습과목 병행

공군은 23일 “공군 8126부대에서 각 부대 보안관계관 60여 명을 대상으로 ‘25-4차 공군 보안실무자 보수교육과정’을 24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작된 교육은 업무 경험이 부족한 부대 보안관계관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4차에 걸쳐 이뤄지는 교육에는 인트라넷으로 신청한 공군 예하부대 보안관계관 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교육은 △보안개론·계획 △각종 보안 위

반사례 △융합보안(문서·인원·시설) △정보통신 보안(사이버·암호) 등 분야별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풍부한 식견을 갖춘 공군본부 보안과 소속 담당관들이 직접 강의하며 보안업무 경험이 부족한 초급간부들도 충분히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이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형 실습과목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을 기획한 공군본부 보안과 보안계획담당 박지민 중령은 “보안은 모든 군 작전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보안태세를 확립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안업무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보안담당관 모두가 합심해 업무 관계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미술 특강·피아노 연주...마음이 풍요로운 한 주

공군8전비, 장병 문화주간 운영 호평

공군8전투비행단이 10월 문화의 날을 맞아 장병들을 위해 문화주간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8전비는 지난 20일부터 장병 사기 진작과 문화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일에는 강원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배여진의 피아노 공연 관람을, 22일에는 횡성군 횡성시네마에서 영화 단체관람을 지원했다.

특히 23일에는 미술평론가이자 대한민국 1호 ‘뮤지엄 스토리텔러’로 유명한 이은화 작가를 초대해 ‘가고 싶은 K미술관: 강원지역 미술관 소개’ 특강을 열었다.

이 작가는 강연에서 원주지역 대표 미술관인 ‘뮤지엄 산’을 비롯한 강원지역 주요 미술관을 설명하고, 장병들에게 예술작품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특강에 참여한 으뜸병사 강두하 일병은 “부대 인근에 위치한 미술관을 잘 몰랐는데, 특강을 들으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알게 돼 뜻깊다”며 “휴가·외출을 나가면 인근 미술관을 꼭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맹수열 기자



공군8전투비행단이 23일 문화주간을 계기로 개최한 ‘가고 싶은 K미술관: 강원지역 미술관 소개’ 특강에서 장병들이 강사로 나선 이은화 작가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부대 제공

데, 특강을 들으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알게 돼 뜻깊다”며 “휴가·외출을 나가면 인근 미술관을 꼭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맹수열 기자

2025년 「국방과 보안」 학술지 제7권 2호(제14호) 공모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

투고 기간 | 2025년 9월 22일 ~ 11월 10일

발간 예정 | 2025년 12월 중

개요

-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에서는 보안정책·기술 등 국방보안 분야 발전을 위해 「국방과 보안」 제7권 2호 게재 논문을 공모합니다.
- 「국방과 보안」은 국방보안 분야 최초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학술지로, 최신 보안정책·기술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상	국방 보안에 관심 있는 인원(현역·예비역, 교수·연구원·학생 등)
분야	보안정책 - AX시대, 미래 전쟁환경 대응을 위한 국방보안정책 발전 방안 - 유무인 복합 체계·클라우드·AI 도입 확대에 따른 국방보안정책 발전 방안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보안거버넌스 개편 및 공급망 보안 제언 - 보안인식 향상을 위한 실리·교육·정책 등 여러 분야 발전적 제언 등 보안기술 - 사이버 환경 및 보안위협에 대비한 최신 정보보호 기술 제시 - AI·IoT·클라우드·트론트 등 최신 ICT 기술에 대비한 국방보안 기술 - 양자 암호·통신 등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국방보안 대책 기술 등 - Anti-Tamper 등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보안기술
투고요령	작성방법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 양식 참조
제출방법	인터넷 메일(dsl2019@kci.ac.kr) 접수 / 게재료 무료
안내 및 문의	국군보안연구소 학술지담당 ☎ 02-731-5842